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등록번호 서울다06400(1988년 2월 15일 창간 격주간)
발행인 김성헌 | **발행처** 재단법인 기독교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편집 베뢰아센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수내구주

JESUS MY SAVIOUR

2016. 11. 27. 제691호



나의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성해선 집사(1983년 생)는 성락교회 광명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것처럼 저에게 집을 주세요."

대학 시절에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한편에 칸막이를 치고 살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으며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신앙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친지와 하객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전셋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르는 전세금에 비해 집값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그 응답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이 집을 구매할 좋은 기회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집을 위한 기도제목은 우리 교회와 남편 직장까지 거리가 가깝고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조경이 잘 꾸며진 아파트였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거처를 구하며 돌아다니던 중에 적합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기도한 곳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년 후, 저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학교 입학을 권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지만 저의 직장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친정까지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주일예배를 통해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집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백배의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막 10:29~30)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해 신학교에 입학하자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몇 년 전에 분양을 신청했던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우리 부부도 은행에 대출금을 착실하게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저는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신학생으로서 공부와 주의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작년 여름, 신학교 학생들에게 몽산포에서 진행되는 여름수련회 봉사가 맡겨졌습니다. 봉사를 준비하던 저는 갑자기 종아리가 저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허리디스크라며 당장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봉사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려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는 몽산포로 내려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축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푸드카페로 오셔서 저를 축사하게 해주세요" 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푸드카페에 들르셨습니다. 목사님께 축사를 받자 제 속에 숨어 있던 귀신이 드러나 통곡을 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허리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가난을 책임지시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성현 목사 성락교회 감독

새것이란 무엇인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 (전 1:2~11)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살아 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해를 주기로 자연 현상이 되풀이 될 뿐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일 년은 영원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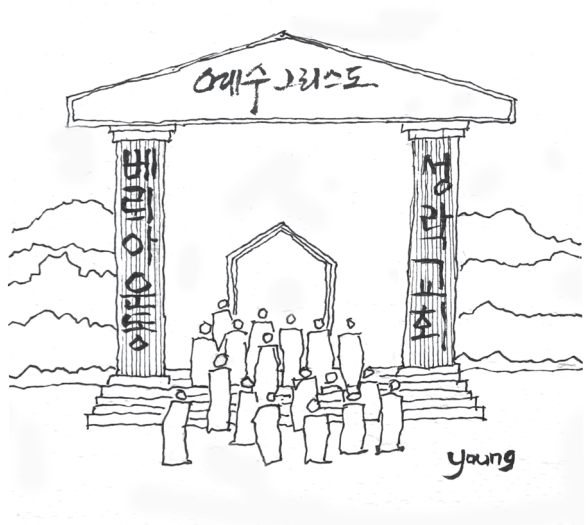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습니다. 젊어서 살이 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 살이 빠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 늙은 것처럼 보입니다. 젊어서 말랐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살이 올라 피부가 팽팽해지고 오히려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인간의 육체는 점차 낡아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침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영혼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피를 알게 되었고 그 피를 힘입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한다면 날마다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되거나, 성적이 나쁘면 낙심하여 자신의 영혼까지 망치고 맙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전 1:2). 이는 육체의 삶을 위해 해 아래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더라도 내일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지난 일을 뒤로 한 채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

베뢰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보다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행 17:11~12). 이와 같이 성도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거나 종교인처럼 수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수양으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시킵니다. 원수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기다릴 힘이 없어 원수의 방해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뿌리치고 끝까지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도 이간하지 못하도록 교통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해야 합니다. 기도를 상달시키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어코 받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일조에 복이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말 3:10). 십일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만약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신의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를 한 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히 결과를 보려 하며 눈앞의 상황에 연연한다면 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보상의 신앙입니다(히 11:6).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자신의 심신을 수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주님께 드린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후에 성장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도 백퍼센트의 정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계 3:18).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하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금을 연단하여 모든 잡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념과 신용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일들은 과거로 보내고 이제는 앞만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月山 이야기

마지막 인상

만삭된 여자의 복중의 아기는 엄마와 서로 생면부지요 그러다가 해산과 함께 엄마와 아기는 동시에 처음 상면하게 된다. 이때부터 사람은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자주 만나면 친숙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어쨌든 만났던 사람은 서로가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은 매일 마지막에 화해와 사랑으로써 아쉽게 헤어져야 한다.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며 헤어진 그날이 서로가 다시 못 볼 영원한 작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번 가면 서로는 이 땅에선 다시 만날 수가 없다.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꺼지지 않는 불만을 품은 채 수많은 사람과 헤어졌으니 그중에 더러는 영원히 헤어졌고, 어떤 이는 미워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내 진정으로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마지막 보낸 자들도 있사오나, 화난 얼굴과 웃지 않는 내 얼굴을 마지막 보여 주며 헤어진 자들이 더러 있나이다.

주여, 나는 주님의 최후같이 스데반의 최후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지막 인상을 보여 줄 수 없을까요?

-월산(月山) 수필집 『님 앞에 엎드려』 중



우리 사회 엿보기

"수서고속철도(SRT) 다음달 9일 개통"



다음 달 9일 개통하는 수서고속철도(SRT) 예매가 오는 2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21일 운영사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은 SR 홈페이지, SRT 모바일앱(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과 승차권 발매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모든 철도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수서고속철도는 수서와 부산 간 왕복 80회, 수서와 광주송정·목포 간 왕복 40회 등 하루 총 120회 편성됐다. 수서역 기준으로 경부선 하행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호남선 하행은 오전 5시 1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SRT 기준운임은 수서와 부산 간 5만2천600원, 수서와 목포 간 4만6천500원 등으로 KTX 대비 평균 10퍼센트 낮다. 개통 후 약 한 달간 운행 형태를 파악한 뒤 여유가 있는 노선에 한해 승차권을 10~30퍼센트 저렴하게 판매하는 '탄력 할인' 제도도 운용할 예정이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는 개통을 앞두고 얼리버드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이달 30일까지 SR회원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만 명에게 30~100퍼센트 할인권을 지급한다.

예술로 이야기하는 성경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60대의 노(老) 대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성당 제단의 뒷벽에 1534년부터 1541년까지 7년에 걸쳐 그린 "최후의 심판"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이 위대한 예술 작품은 천국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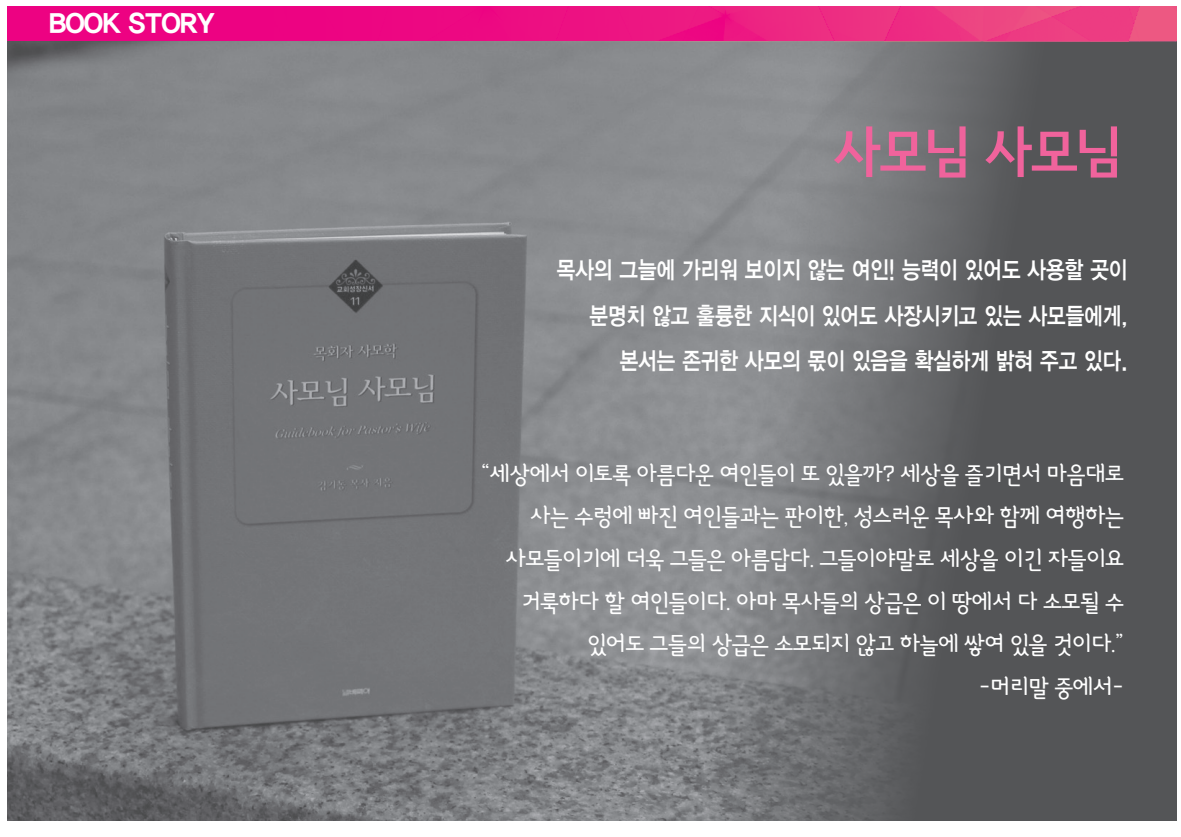
인류의 종말을 상상하며 그린 "최후의 심판"은 당시 비극적인 시대상과 미켈란젤로의 비관적인 인생관을 반영한다. "최후의 심판"을 그릴 당시 세상은 매우 암울했다. 로마는 스페인 군대에게 점령당했고, 유럽은 가톨릭교회와 기독교회로 분열되어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미켈란젤로는 신을 버리고 미쳐버린 인간에 대한 신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 작품에서 미켈란젤로는 그림에서 가능한 인간상을 어떤 포즈나 행동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표현한다. 재미있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피부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는 바돌로매의 가죽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넣었다는 사실이다.

위성 예배 안내

가 평	070)7300-8250	부 천	070)7300-8500
강 남	070)7300-8260	부 평	070)7300-8540
강 동	070)7300-8270	분 당	070)7300-8550
강 릉	070)7300-8280	서인천	070)7300-8600
강 북	070)7300-8290	수 원	070)7300-8650
강 서	070)7300-8300	시 흥	070)7300-8660
광 명	070)7300-8330	안 산	070)7300-8621
광 주	070)7300-8340	예 산	070)7300-8680
구 리	070)7300-8350	예 일	070)7300-8800
군 산	070)7300-8360	원 주	070)7300-8840
금 천	070)7300-8370	이 천	070)7300-8720
김 포	031)998-0191	인 천	070)7300-8730
남 부	070)7300-8380	일 산	070)7300-8743
남인천	070)7300-8390	제 주	064)764-5447
노 원	070)7300-8400	천 안	070)7300-8770
대 구	070)7300-8410	춘 천	070)7300-8780
대 전	070)7300-8460	통일동산	070)7300-8791
덕 정	070)7300-8429	평 택	070)7300-8640
동 부	070)7300-8510	포 천	070)7300-8820
몽산포	070)7300-8491	청 풍	043)648-3965
부 산	070)7300-8530	한 라	064)764-5447

BOOK STORY



무화과나무 아래

친구



크리소스톰(J. Chrysostom, 347~407)은 설교자로서의 탁월함 때문에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다. 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거인이었지만 강대상 아래에서는 예의 바르고 다정하며 친절한 성품을 지닌 영락없는 촌부의 모습이었다. 그는 교회와 교인의 가장 친근한 친구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크리소스톰에게 있었던 일화다. 그는 박해가 불같이 닥쳐오는 중에도 신이라 자칭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붙들어다가 무섭게 심문하며 위협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땅끝의 사지로 귀양을 보내겠다."

황제의 말에 크리소스톰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세상은 모두 내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를 간들 상관있겠습니까."

그의 당당한 대답에 황제는 매우 기분이 상해 목소리를 높여 위협하며 소리쳤다.

"그렇다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목숨은 끊을 수 있지만, 내 생명은 주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네 재산을 몽땅 빼앗으면 어쩌겠느냐."

"내 재산은 하늘에 있으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친구들을 너로부터 남김없이 떼어 놓겠다."

"나는 당신이 절대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영원하신 친구가 계시니 염려가 없습니다."

황제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내보내고 말았다. 크리소스톰의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仁〉

CARTOON



전화를 걸면 희망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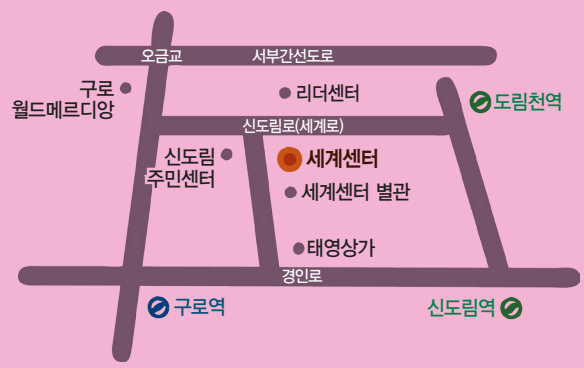
- t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토, 공휴일 제외
- p 02-831-1720~2, 070-7300-6767~9
- h www.sungrak-a.or.kr

SBC 성락인터넷방송

- t 월~금 12:00~13:00 | 주일 11:00~14:00
- h http://radio.sungrak.or.kr

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6:50(신길본당)
	2부 · 오전 9:00(신길본당) (위성중계)
	3부 · 오전 11:00(세계센터) (위성중계)
	연합 · 오후 3:00(세계센터)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신길본당, 세계센터)
수 요 예 배	오후 7:30(기독청년선교회관)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9:00(신길본당)
베리아신유성회(화)	오후 2:00(복음관 7층)
(목)	오전 10:30(복음관 7층)



TEL: 070-7300-6200, 63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 정 류 장: 구로역 태영프라자(태영상가)
  간선버스: 160 260 503 600 660
  좌석버스: 301 320 510 905
  지선버스: 5614 6513 6637 6640
  일반버스: 11-1 11-2 88 92
- 지 하 철: 신도림역 1번 출구, 구로역 2번 출구, 도림천역 1번 출구에서 5~10분 거리

구독안내 070-7300-6708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락침례교회 | **우송후원금(1년)** 7,000원
국민은행 765-01-0033-508 | **우리은행** 294-000511-01-078
개척교회에 『예수내구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